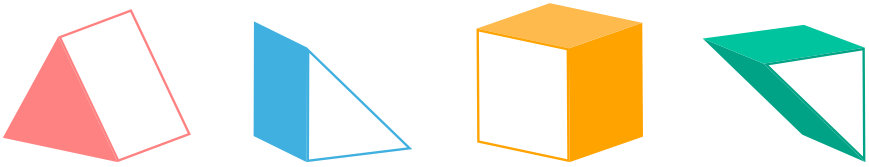

수 능 특 강

이색, 「부벽루」

- 갈래 : 한시, 오언율시
- 성격 : 회고적
- 구성 : 기승전결 4단 구성
- 어조 : 지난 날의 찬연한 역사를 회고하며 그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무상감에 젖음
- 제재 : 옛 성터에서의 풍경과 감상
- 주제 : 인생무상

#EBS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고구려의 옛 도읍인 평양의 부벽루에서 바라본 풍경을 통해,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텅 비어 있는 성의 모습에서 작가는 왕조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느낀다. 작가는 이런 심정을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주몽)을 떠올리는 것과 휘파람을 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에서 자연의 영원한 모습을 표현하여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사의 덧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이색이 부벽루에서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자연의 영원한 풍경을 보는 것은, 고려 왕조의 무상함과 함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의 쓸쓸한 모습을 느끼게 한다.

주제

지난 역사의 회고와 인간사의 무상함

구성

이 작품은 한시의 한 종류인 오언 율시로 창작되었다. 오언 율시는 '수-함-경-미'의 구성을 보인다.

- 수(1~2행): 부벽루에 오르게 된 화자
- 함(3~4행): 부벽루에서 바라본 성의 모습
- 경(5~6행):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떠올림.
- 미(7~8행): 자연의 영원한 풍경

이색, 「부벽루」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 영명사: 부벽루 서쪽에 있던 절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 부벽루: 평양 모란대 밑 절벽에 있는 누각
- 暫登(잠등) : 잠시 오르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성의 퇴락한 모습을 표현,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달이 쓸쓸함을 더한다.
- 城空(성공) : 성이 비어 있다

천 년 구름 아래 돌은 늙었네. 石老雲千秋
- 오래 된 바위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다.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石老(석로) : 오래 된 바위. 조천석(朝天石, 기린굴 남쪽에 있는 큰 바위)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 기린마(麒麟馬-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탔다는 말). 말을 타고서 기린굴로 들어가니, 땅 속에서 조천석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함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 天孫(천손) : 하늘의 자손. 동명왕을 가리킴
- 화자는 천손인 동명왕과 같은 진정한 영웅이 나타나서 국운이 쇠한 고려를 다시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磴 → 風磴(풍등) : 만든 돌다리
- 長嘯(장소) : 길게 휘파람 불다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며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신의 쓸쓸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시의 구조

자연(무한)- 달 , 구름
↕↕⇒⇒⇒⇒ 대비를 통한 무상함 강조
인간(유한)- 텅빈 성 (= 돌)

선경(先景)	수련(1~2구)	여정의 길에 부벽루을 방문함
	함련(3~4구)	부벽루 주변의 쓸쓸한 자연 정경 · 텅빈 성-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무상감 ⇔ 달 · 세월의 흐름에 깍인 늙은 돌-덧없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 ⇔ 구름
후정(後情)	경련(5~6구)	고구려의 후손인 주몽을 회상하고 인생 무상감을 토로함 · 기린마와 천손-인간 역사의 중단 암시
	미련(7~8구)	자연의 의구함에 대한 감회 ⇔ 인간 역사의 무상함 · 산과 강의 의구함 ⇒ 고려 왕조의 쇠퇴에 따른 국운의 위축 암시

작품의 특징

- 설의적 표현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이 시는 전형적인 오언율시(五言律詩)로, 한 행이 다섯 글자씩 8행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 짝수 행인 2, 4, 6, 8행에 운(韻)를 배치하여 각운의 효과를 주고 있다.
  (樓, 秋, 遊, 流의 네 글자가 운율을 나타낸다.)
- 두 행씩 묶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여 각각 수함경미련을 구성한다,
- 글자 수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의미를 형성한다.
- 대구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 권력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였다.
- 전통적 한시의 구성 방법인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 작품의 주된 정서는 망해 버린 고구려의 옛 성터에서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을 느끼는 것이다.
-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 동명왕 신화를 통해 기울어 가는 고려의 국운과 기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정약용, 「고시(古詩) 7」

- 갈래 : 한시, 5언고시, 연작시 (27수)
- 성격 : 우의적, 풍자적, 비판적
- 제재 : 부평초, 연잎, 행채
- 주제 : 임을 여읜 슬픔(이별의 한)

#EBS

해제

이 시는 정약용이 창작한 「고시」 27수 중 일곱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시」의 다른 작품들처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작가는 민중을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방 관리의 학정과 수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과 연잎의 괄시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여긴 작가의 생각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마지막에 표현된 현실에 대한 통탄은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수탈과 학정을 펼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정약용의 삶과 관련지어 정약용의 순탄하지 못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주제

지배층의 횡포와 백성들의 괴로움

구성

- 1~2행: 뿌리가 없는 부평초의 삶
- 3~4행: 바람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부평초의 모습
- 5~6행: 가냘프기만 한 부평초의 삶
- 7~8행: 연잎의 괄시와 행채의 괴롭힘
- 9~10행: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정약용, 「고시(古詩) 7」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풀들의 보편적 속성)	百草皆有根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정착이 불가능한 부평초의 속성) (어려운 벼슬 생활을 겪은 정약용 자신, 또는 정약용이 바라보는 백성들을 의미.)	浮萍獨無蔕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汎汎水上行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적인 존재에 의해서 여기저기 떠다님)	常爲風所曳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生意雖不泯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뿌리 박지 못하고 떠도는 부평초의 모습에서 조선 후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환기)	寄命良瑣細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지배층)	蓮葉太凌藉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지배층)	荇帶亦交蔽 (長嘯(장소) : 길게 휘파람 불다)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同生一池中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	何乃苦相戾

*행채: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풀.

작품의 특징

- 조선 후기 사회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서러움을 우의적으로 풍자
- 당시의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
-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과 안타까움이 드러남
- 정약용의 삶과 관련지어 정약용의 순탄하지 못한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음

작자미상, 「청산별곡」

• 갈래 : 고려가요
• 시적 화자 :
(1) 시적 화자와 시인이 동일하지 않음
(2) 시적화자는 세 인물로 나뉨
① 삶의 터전을 잃고 방랑하는 유랑민,
② 현실에서 좌절하여 고뇌하는 지식인,
③ 실연한 여인

<화자에 따른 3연의 시어 의미>

화자	가던 새	잉 무든 장글
유랑민	갈던 밭 이랑	이끼 묻은 (녹슨) 쟁기
변방의 병사, 좌절한 지식인	날아가던 새	녹슨 병기
실연한 여인	떠나는 임(비유)	이끼 묻은 (녹슨) 은장도

<화자에 따른 주제의 다양한 해석>

시적 화자	주제
유랑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의 비애
좌절한 지식인	속세를 떠난 지식인의 염세적인 태도
실연한 여인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자연으로의 도피

(3) 화자의 상황 :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상향의 세계에서 삶의 고뇌를 해소하려 함
(4)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애상적, 체험적, 현실도피적

• 후렴구의 역할 :
①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
② 시적 안정감과 통일감
③ 연과 연의 구별
④ ㅇ, ㄹ 울림소리 반복 - 밝고 경쾌한 느낌
⑤ 비애, 슬픔 + 후렴구 : 작품 전체의 애상적인 어조와 상반됨 => 삶의 고뇌와 갈등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당대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줌

• 시상 전개 방식 :
① 대칭적 2단 구성 : 1연~4연의 '청산'과 5연~8연의 '바다'가 의미상 조응 관계 형성
- 1연의 대칭이 되는 연은 6연이므로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꿔주면 완벽한 대칭 구조가 된다.
② 서사적 구성 : 청산 소망 → 갈등의 지속 → 바다 소망 → 갈등 지속, 비애와 체념

#EBS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속요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악장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 『시용향악보』에는 1연과 곡조가 실려 있으나, 이러한 옛 문헌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은 찾을 수 없다. 전체 8연의 형식으로,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다. 정형적 율격, 시구의 반복, 울림소리의 반복적 사용으로 음악성이 두드러진다.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 /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구성

▸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 2연: 삶의 고독과 비애
▸ 3연: 미련과 번민
▸ 4연: 절망적인 고독과 비애
▸ 5연: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
▸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 7연: 사슴이 해금을 켜는 정경
▸ 8연: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시도와 체념적 심정

작자미상,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
└청산: 화자의 이상향(도피처).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해석에 따라 화자의 위치와 처지가 달라짐)	살고 싶어라 (소망)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와 아쉬움)
	살리라 (의지)
	살 수밖에 없다 (자포자기)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우는 구나 (감탄형)
	울어라 (명령형)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믈 아래: 속세. '청산', '바ᄅᆞ래'와 대비(대조)되는 공간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새 :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이입의 대상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날아가던 새	화자의 상실감
	갈던 밭	유랑민의 슬픔
	'믈 아래(속세)'로 간다는 점에서	좌절한 지식인과 뜻을 같이하던 벗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임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잉 무든 장글 란 가지고	이끼 묻은 쟁기	유랑민
	낡이 무딘 병기	좌절한 지식인
	이끼 묻은 은장도	실연한 여인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ᄉᆞᆫ 엇디 호리라.
└밤 :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낮'과 대비(대조)되는 시어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어듸라 더디던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 코,
└돌 :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바다 : '청산'과 같은 화자의 이상향(도피처).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속세와 단절된 공간

사ᄉᆞ미 짓대예 올라셔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사ᄉᆞ미 짓대예 올라셔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사슴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함
	사람이	연주를 들으며 괴로움을 잊고 싶음
	사슴 분장한 광대가	당대의 산대놀음과 결부시킴

가다니 ᄇᆡ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술: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 이상향 추구로도 해소되지 않는 현실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해 주는 매개체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 ᄒᆞ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술이 (나를) 붙잡으니	화자가 술로써 시름을 달램
	술이 (임을) 붙잡으니	화자가 술에게 임을 빼앗김

작품의 특징

- 음보율 3음보, 음수율 3.3.3 또는 3.3.2조 ⇒ 살어리∨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살어리∨랏다.
- 분절체(=분연체), 후렴구가 존재한다.
- 감정 이입, 대조를 통한 화자의 정서 표출, 반복법, 상징법, 의인법, 비교법이 사용되었다.
- 'ㄹ, ㅇ' 등의 유음을 이용한 후렴구를 통해 밝고 경쾌한 리듬감 형성하지만 이는 작품 전체의 애상적 어조와 상반된다.
- AABA(aaba) 구조를 지닌다. 이는 A구절의 반복과 B구절의 변화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는 구조이다.
  살어리 /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애 / 살어리랏다.
  우러라 / 우러라 새여 / 자고 니러 / 우러라 새여.
-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인이 전달하려는 관념과 정서를 추상적 차원이 아닌 경험적, 감각적 차원으로 구체화함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 화자의 미련과 상실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마자셔 우니노라. -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갈래 : 고대가요, 4언4구의 한역 시가
- 성격 : 개인적, 서정적, 체념적, 애상적
- 제재 : 물을 건너는 임
- 주제 : 임을 여읜 슬픔(이별의 한)

#EBS

해제

이 작품은 4언 4구로 되어 있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이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먼저 소개되어 있고, 17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문헌들에도 등장하고 있다. 머리를 풀어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주제

임을 잃은 슬픔

구성

- 1행: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 2행: 물을 건너는 임
- 3행: 물에 빠져 임이 세상을 떠남.
- 4행: 임의 죽음에 대한 한탄

公無渡河	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사랑'의 이미지
公竟渡河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사랑의 종말로 임과의 '이별'을 의미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이 빠져 돌아가신 3행의 '물'은 '죽음'의 이미지
當奈公何	이제 임을 어이할꼬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

작품의 특징

-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문헌상으로는 국문학사상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
- 고조선 때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라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 이별과 죽음, 슬픔과 그리움 등의 소재와 정서가 우리 서정시에서 근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시적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득오, 「모죽지랑가」

- 갈래 : 8구체 향가
- 성격 : 추모적, 찬양적, 서정적
- 제재 : 죽지랑의 인품
- 주제 :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에 대한 추모의 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시대 8구체의 향가로,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던 득오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가 죽지랑 생존 시기인지, 사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일연은 이 작품을 기록하여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

구성

- 1~2구: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 3~4구: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림.
- 5~6구: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 7~8구: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

득오, 「모죽지랑가」

간 봄 그리매 ↳지나간 봄.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절	간 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ㅅ 우리 시름 ↳우리 시름 : 울어 시름. *'우리'는 울(어근)+이(부사와 접미사).'시름'은 동사 '시름하다'의 어근. '시름'은 그 뒤에 올 접미사 '~하는데'가 생략되어 있다. 뜻은 '슬피 울면서 시름하고 있는데'임.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화자가 죽지랑과 사별한 슬픔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 주는 시어
아룸 나토샤온 ↳아룸: 아름다움 *'미(美)' 또는 '가(佳)'의 뜻인 '아름답다'의 명사형(名詞形).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 (예찬)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즈싀 살쯈 디니져 ↳삼쯈 : 주름살. 늙은 죽지랑의 모습 (안타까움) = 화랑이 세력을 잃음(실세(失勢))를 의미하기도 함 ↳즈싀 : 모양이,용모가. *'ᄉᆞᆺ>짓(전설 모음화)':용모.모양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내다 ↳세월의 무상함
눈 돌칠 ᄉᆞ이예 ↗ ᄉᆞ이예 : 사이에. 동안에. 변천 : ᄉᆞᅀᅵ > ᄉᆞ이>사이 ↳눈 돌칠 : 눈을 돌릴.눈을 돌이킬.곧 '눈 깜박할'.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맛보ᄋᆞᆸ디 지ᄉᆞ리 ↗ 지ᄉᆞ리 : 지으리.되오리. ↳맛보ᄋᆞᆸ디 : 만나 보기를.만나 뵈도록.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남
낭(郎)이여 그릴 ᄆᆞᄉᆞᄆᆡ 녀올 길 ↗ 녀올 길: 갈 길이. *'녀다'는 '가다(行)' ↳그릴: 그리워하는.그리운. *'그릴'의 'ㄹ'은 부정 시제로서 현재(現在)로 풀이된다. ↳낭이여: 낭(郎)이여. *'郎'은 '竹旨郎'을 가리킴. '여'는 감탄 호격 조사. ↱ᄆᆞᄉᆞᄆᆡ : 마음의. 변천 : ᄆᆞᅀᆞᆷ > ᄆᆞᄆᆞᆷ > ᄆᆞᄋᆞᆷ > 마음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봇 ᄆᆞᄉᆞᆯ히 잘 밤 이시리 ↗ 녀올 길: 갈 길이. *'녀다'는 '가다(行)' ↳다봇 굴허헤: 다북쑥 굴헝에. 쑥이 우거진 마을에, 헌한 구렁에. – 죽음의 세계 *'다봇'은 다북쑥이고,'굴허헤'는 '굴헝('ㅎ'곡용어)'의 처격(處格)으로 굴헝은 '구렁','구덩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양주동 역>	<현대어 역>

작품의 특징

- 마지막7, 8구는10구체 향가의 낙구인 9, 10구와 유사한 감탄사를 보여 주고 있다.
- 노래에서 대상을 묘사적으로 표현하였다.
- 주술성이 없어 개인 창작의 순수 서정시라 할 수 있다.
- 작가가 자신의 상관인 시적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현하기 위해 부른 노래이다.
-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작자 미상, 「가시리」

- 갈래 : 고려속요, 서정시, 이별가
- 성격 : 애상적, 서정적
- 형식 : 3,3,2조의 3음보의 운율
  1연이 2구로 이루어진 전4연의 분절체 형식
  각 연에 후렴구 삽입
  기승전결의 완결된 구조
- 주제 : 이별의 정한

#EBS

해제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원망, 슬픔 등의 정서를 솔직한 언어로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임이 떠나려고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2연에서는 가는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3연에서는 붙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4연에서는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별에 처한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체념, 소망의 정서를 짧은 노래 속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에 와서도 여러 가수의 노래로 재창작되어 불리기도 한 작품이다.

주제

이별의 슬픔

구성

- 1연 :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확인
- 2연 :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 3연 : 절제와 체념
- 4연 :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

작자 미상,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반복)화자의 절실한 감정 강조
가시리잇고 : 가시겠습니까? 가시렵니까?
가(동사어간)+시(주체높임선어말어미)+리(미래시제선어말어미)+잇고(높임 의문형 어미) – 잇고는 자음이 탈락됨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의미가 없이 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 조흥구('위'는 강탄사 '증즐가'는 악기의 의성어로 악률에 맞추기 위해 삽입)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 후렴구(조흥구): 별다른 의미가 없음.
(궁중악의 가사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이별에 대한 옛날 우리 여인의 전형인 수동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는 → 붙잡아 둘 일이지마는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면 임이 영원히 나를 떠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주체:임 / 선ᄒᆞ 면: 서운하면. 마음이 토라지면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셜온'의 주체는 임이 아니고 임과 서러운 이별을 하는 서정적 자아
┌구문상으로는 '셜온'이 '님'을 수식하므로 님이 서러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 주체는 님과 서러운 이별을 하고 있는 작중 화자이다.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 나는
가시는 ᄃᆞᆺ 도셔 오쇼셔 나는 → 가시자마자 곧 돌아서서 오소서 / ᄃᆞᆺ : 하자마자 곧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냄. 함축적으로 주제가 드러나 있는 부분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작품의 특징

- 간결하고 소박한 함축적인 시어로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
- 반복법 사용
- 후렴구는 민요적 성격을 반영하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매끄러운 리듬을 살림
- 고통스러운 이별의 정서를 절묘하게 함축적으로 그림
- 자기희생적이고 미래지향적 태도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갈래 : 고려 가요. 고려 속요. 장가(長歌)
- 성격 : 감성적, 여성적, 애상적
- 제재 : 정석(鄭石) (이 노래 첫머리에 나오는 '딩아 돌하'의 '딩[鄭(정)]'과 '돌[石(석)]')
- 주제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영원한 해로를 축원하는 사랑의 충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고려 가요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한 후, 그 조건이 만족될 때에야 이별하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1연은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으로,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2~5연은 구운 밤, 옥 연꽃, 무쇠 옷, 무쇠 소를 등장시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연은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한데, 이는 6연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구절로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두 노래에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과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노래함

구성

- 2~4연: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6연: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함.

작품의 특징

-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기록됨
- 과장법에 해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한 연에 두 번씩 되풀이되는 2구를 통해 감정 강조
-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한 사실로 가정하는 역설의 표현 기법 사용
- 제 2연에서 제 5연까지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메김소리'로 부른 것으로 추측하며 민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무한함을 표현한 노래
- 제 2연에서는 구운 밤, 제 3연에서는 옥련꽃, 제 4연에서는 무쇠옷, 제 5연은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놓고 불가능한 일을 제시하여 이별의 불가능을 강조
- 소망형인 'ᄋᆞ와지이다'로 끝을 내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게 함.
- 영원 무궁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장 뛰어나다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딩'은 정(鉦). '돌'은 石. 즉 경(磬)이므로 금석 악기인 '鉦磬[징과 경쇠라는 악기]'에 은유하여 연정의 대상 인물인 '鄭石'을 나타낸 것. '징', '돌'은 악기를 의인화한 것과 동시에, 연모의 대상을 나타냄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 삭삭기: 가는 모래 / 세모래: 사각사각거리는 모양(청각적 심상)
- 나난: 운율 형성 위한 여음구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 심습니다.
- 구운 밤 닷 되: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그 밤이 움이 돋아 싹 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돋아 싹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2연〉
- 여의아와지이다: 여의고(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하지 않겠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 새깁니다
- 옥으로 새긴 연꽃: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 삼동(三同): 세 묶음이. 삼동(三冬)의 잘못된 표기로 본다면 '추운 겨울'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3연〉

무관의 공복(公服)으로 '철릭'은 이 노래의 지은이가 '철릭'을 입을 수 있었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 재단하여
- 무쇠로 철릭: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임을 여의아와지이다 〈제4연〉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 지신들: 떨어진들, 화자와 임의 관계에 닥칠 시련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즈믄 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 〈제6연〉
- 설의법, 영원한 사랑을 강조
- 〈서경별곡〉의 제3연이 첨가,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널리 유행되었을거라는 추측가능, 고전가요 구전 중에 삽인 가능성 보여줌

* 접주하요이다 : 접붙입니다.
* 철릭 :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윤선도, 「몽천요」

- 갈래 : 연시조
- 성격 : 비유적, 비판적
- 제재 : 옥황, 군선 등
- 주제 :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결핍감과 좌절감.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백성들에 대한 걱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인평 대군에게 보낸 전체 3수의 연시조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윤선도는 효종과 인평 대군의 사부(師傅)를 지낸 적이 있는데,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인 윤선도를 정사품 벼슬에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정삼품의 벼슬에 임명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인사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이가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윤선도는 면직되는데, 이 작품은 그가 면직되고 난 뒤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연군(戀君)과 우국의 정

구성

- 제1수 : 임금과의 만남과 안분지족의 추구
- 제2수 : 백성을 향한 선정(善政)의 포부와 좌절
- 제3수 :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윤선도, 「몽천요」

상해 : 늘, 항상. 생시이던가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天上)의 서울(임금이 계신 한양)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화자가 정치적 현실에서 겪었던 좌절감을 드러내는 우의적 장치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에 은거할 수밖에 없음(비통함과 자조적 심정이 담김)
임금 여러 신선들, 신하들. 작가의 등용을 반대했던 '서인 세력'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탓다
오호의 물안개 속에 떠있는 달.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 호숫가에서 태평한 세월을 누림, 즉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풋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얼핏 든 잠 백옥경의 신선들이 사는 12 누각, 여기서는 궁궐의미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짇ᄂᆞ다
윤선도를 배척했던 신하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늬 결의 무르리
모든 백성 설의법,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문제는 묻지도 못함
하ᄂᆞᆯ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낸고 →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서 꿈어 온 것으로 현실에 대한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미로 여기서는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기워내다: 죄퇴한 기운을 잃으키다. 설의법. 수습할 수 없구나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ᄒᆞᆯ 제 엇던 바치* 일워 낸고
다시 고쳐 지음 유능한 신하 설의법, 이루어 냈는가
옥황께 ᄉᆞᆯ와보쟈* ᄒᆞ더니 다 몯ᄒᆞ야 오나다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경세제민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안타까움

* 이저신 제 : 이지러졌을 때.
* 엇던 바치 : 어떤 공인(工人), 목수.
* ᄉᆞᆯ와보쟈 : 여쭈어보자.

작품의 특징

- 옥황은 임금, 군선은 윤선도를 배척했던 신하들로, 윤선도가 임금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정치적 이상이다.
- 임금께 나라의 위기 대처를 아뢰지 못한 안타까움과 우국애민의 정을 우의적으로 표현
- 작품에서 꿈은 화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의 공간으로 제시
- 도교의 선경을 빌어 자신의 우국충정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
-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떤 어진 신하가 구할 것인가를 임금께 물어보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

이정보, 「꿈으로 차사를 삼아~」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정형시
- 성격 : 연정적, 애상적
- 제재 : 사랑
- 주제 : 임을 향한 그리움

#EBS

해제

이 작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꿈'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임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장에서는 '님'이라는 어휘를 반복하며 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임을 향한 그리움

구성

- 초장 : 꿈을 차사로 삼아 임을 오게 한다는 상상
- 중장 : 멀리 있는 임이 순식간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
- 종장 : 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 (오게 하면= 오게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현실을 가정하며 강한 바램을 나타냄.
↳ 시공간을 초월한 추상적 개념. '꿈'을 구체적인 대상'차사'로 사물화

비록 천 리라도 순식(瞬息)에 오련마는
↳ 순식간에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올동말동하여라
↳ 그 님도 나 말고 다른 님이 있을 것이니, 올지 말지 모르겠다

* 차사 :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작품의 특징

- 꿈이라는 비현실적 소재를 구체적인 차사라는 대상으로 형상화하면서 임이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뜻을 강하게 표현 (추상적 개념의 의인화)
- 님, 동과 같이 동일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해학적 효과를 낸다.
- 화자의 일방적 제안과 기대가 현실에선 실현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먼, 천 리'등의 시어로 표현

신흠, 「방옹시여」

- 갈래 : 30수의 연시조(긴밀한 짜임새를 지니지는 못함)
- 제재 : 산촌의 풍경
- 주제 : 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시름을 잊고 지내고자 하는 마음, 임을 향한 그리움

#EBS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인 신흠이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경기도 김포로 쫓겨나 있던 시기에 반년여에 걸쳐 쓴 전체 30수의 연작 시조이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삶의 정취와 연군지정,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이 30수의 시조에 두루 담겨 있다. '겨울 → 봄 →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 흐름을 작품 전체의 기본 틀로 삼아 30수의 시조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를 지녔다고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이가 느끼는 삶의 정취 / 임을 향한 그리움 / 세상에 대한 근심

구성

- 제1수 : 달빛을 벗 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
- 제3수 :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
- 제6수 : 겨울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혼탁한 세상에 대한 근심
- 제8수 :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제14수 :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삶.
- 제17수 : 봄날에 더욱 깊어지는 임을 향한 그리움
- 제19수 : 낙엽 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리움
- 제26수 :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
- 제29수 : 노래를 불러 풀고 싶은 깊은 시름

#시간 관련 시어

눈, 일편명월	겨울, 밤
초록이 다 매몰, 풍상	겨울
눈, 달	겨울, 밤
한식, 봄빛, 화류	봄
속잎, 나비	초여름

작품의 특징

- 영탄법,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산촌→눈길→돌길→일편명월'로 이어지는 풍경 묘사로 쓸쓸한 겨울밤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 차가운 느낌의 소재들을 사용해 세속을 떠난 화자의 냉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냄
- 은유적 표현을 통해 '공명(功名)'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냄
- 관습적 소재를 사용해 화자의 내면 의식을 투영하고 있음
- 소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지조와 절개,충의 사상을 드러냄
- 신흠이 계축옥사(광해군)를 경험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산골에 묻혀 생활하는 마음을 노래
- 방옹이라는 것은 밀려난(방출) 늙은이란 의미로 화자를 가리키며, 시여는 시조를 의미

신흠, 「방옹시여」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 계절적 배경을 통해 세속과의 단절을 표현
영탄법, 표면적으로는 눈이 내려 길이 막힌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관직을 잃은 상황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 고정한 화자의 처지와 현실 인식
설의법, 저연친화적인 태도로 위안을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다는 자기 위안 〈제1수〉

눈에 덮여 드러나지 않게 따묻혔을 적에(계절감을 드러냄)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한 제 송죽(松竹)만 푸르렀다 → 송죽의 절개를 찬양(대조)
소나무와 대나무,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은 의지와 높은 정신을 나타내는 관습적 상징
뒤섞여 칠 적에 송죽
풍상(風霜) 섞어 친 제 네 무슨 일 혼자 푸른가
바람과 서리(계절감과 함께 시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계축화옥을 암시)
두어라 내 성(性)이어니 물어 무엇 하리 → 설의법 〈제3수〉
여기서의 <내>는 <저마다>의 뜻. 저마다의 바탕이거니, 각자의 속성이거니.

옛말의 <좇다>에는 '따르다'의 뜻 외에도 '경하다'의 뜻이 있어'달까지도 경하여'로 풀이
어젯밤 눈 온 후(後)에 달이 좇아 비추었다 → 눈 온 후의 달밤의 정경
천상의 달과 지상의 눈이 상응하는 아름다움
눈 후(後)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하늘의 달과 지상의 눈이 상응하는 조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엇더타 천말부운(天末浮雲)*은 오락가락하느뇨 → 달빛을 가리는 구름에 대한 경계 〈제6수〉
하늘 가에 떠 있는 구름, 달의 광명을 가리운 존재 구름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서까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 화자의 집이 엉성하게 만들어져있음.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작은 줄 웃지 마라 명령문, 소유에 대한 욕망을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화자가 '만산나월'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은자로서의 자긍심이 드러남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제8수〉
은자로서의 자긍심, 자족감. 안빈낙도. 자연에서 사는 삶이 주는 만족감

시비(是非) 없은 후(後)이라 영욕(榮辱)이 다 불관(不關)타*
금서(琴書)*를 다 흩은 후(後)에 이 몸이 한가하다
백구야 기사(機事)*를 잊음은 너와 낸가 하노라 〈제14수〉
속세의 일을 잊음 '백구'를 친근감. 동질감을 갖고 대함
'백구'의 상징성: 욕심없는 삶을 상징하는 관습적인 소재

봄빛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적 배경으로, 화자가 기대감을 갖게하는 소재. '봄빛'은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과 연관된 시어,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
한식(寒食) 비 온 밤의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꽃과 버들 '화류'(자연물)와 '님'(인간)을 대비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애상감을 심화.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 선경후정의 전개방식. 초장과 중장에서 봄날의 경치를 노래하고 종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 〈제17수〉

얇고 뻣뻣한 물건이나 풀기가 센 옷 따위가 부스러지거나 서로 크게 스치는 소리.
창(窓)밖의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 '청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킴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슨 일인고 → 설의법. 화자의 아쉬운 심정을 부각.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
어즈버 유한(有恨)한 간장(肝腸)이 다 끊길까 하노라 〈제19수〉
간과 창자의 길이가 한정적인데 이것이 다 끊어질 정도로 임을 보고싶어함을 표현.

계절의 변화 (봄→여름)표현.
꽃 지고 속잎 나니 시절도 변(變)하였다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야 날아다닌다
뉘라서 조화(造化)를 잡아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고 〈제26수〉
천지만물의 탄생과 성장을 주관하는

노래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 세상사에 지친 화자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으로서의 성격.
(작가의 우리말에 대한 인식 : 말로 다 표출하지 못하는 감정을 시조는 풀 수 있다. 시름을 푸는 것이 시조의 본질이라 여김)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말로는 다 말할 수 없어서에 대한 인식 : 말로 다 표출하지 못하는 감정을 시조는 풀 수 있다. 시름을 푸는 것이 시조의 본질이라 여김)
진실(眞實)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제29수〉
시름 겨운 화자의 상황을 암시시조는 풀 수 있다. 시름을 푸는 것이 시조의 본질이라 여김)

* 천말부운 :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
* 만산나월 :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
* 불관타 : 상관없다.
* 금서 : 거문고와 책.
* 기사 : 욕심.
* 혜란 혜경 : 난초 핀 좁은 길.

이덕일, 「우국가」

- 갈래 : 연시조
- 성격 : 비판적, 의지적
- 제재 : 나라에 대한 걱정
- 주제 :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우국지정

#EBS

해제

이 작품은 광해군 때 작가가 고향 함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전체 28수의 연시조이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우국 시조로서,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과 '붕당'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 폐해를 지적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전반적인 구성은 '서사-본사-결사'의 형태를 취하며, 본사는 다시 전쟁의 실상을 노래한 작품군과 당쟁의 폐해를 노래한 작품군으로 구분된다. 서사인 <제1수>는 작가가 그동안 익혀 오던 학문을 버리고 무(武)를 선택하게 된 상황을, 결사인 <제28수>는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붕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구국의 방안 등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에 대한 걱정

구성

- 제1수 : 나라를 위해 학문을 중단하고 무를 선택했으나 성취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안타까워함.
- 제3수 : 나라의 문물을 훼손한 왜적에게 복수를 다짐함.
- 제6수 :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관료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함.
- 제14수 : 붕당들은 서로 다투기를 일삼고, 그 와중에 돕는 신하 없이 임금이 고립됨.
- 제16수 : 당쟁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의 공정한 태도와 역할을 강조함.
- 제26수 : 당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
- 제28수 : 부귀공명에는 뜻이 없이 홀로 나라를 걱정함.

이덕일, 「우국가」

학문(學文)을 후려 치우고 반무(反武)*를 한 뜻은
↳ 그만두고 ↳ 반대로 무(武)를 배운 것은
삼척검(三尺劍) 둘러메고 진심보국(盡心報國)하려 했더니
↳ 1척=30.3cm ↳ 마음을 다하여 나랏일을 도우려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제1수〉
↳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품었지만 이룬 바가 없는 것에 대한 반성과 후회의 정서
↳ 자신이 학문에 힘쓰다가 문무과에 급제하여 어려움에 빠진 조국을 구해보려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큰 공을 세우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이를 한탄

↳ 임진왜란의 치욕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 밖에 다시없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 옷과 갓 같은 문화의 산물
이 원수(怨讎)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제3수〉
↳ 이 땅을 짓밟은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의관(衣冠)은 문화를, 칼은 적개심을 형상화

↳ 감탄사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러운지고
국가 간위(艱危)*를 알 이 없어 서러운지고
↳ '서러운지고'의 반복. 위정자들이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에 무관심한 것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의 정서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九重天)*에 사뢰소서 〈제6수〉

↳ 대구법, 붕당간의 소모적인 다툼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 당쟁의 실상과 폐해. 서로 편을 갈라서 상대편을 틀렸다고 공격하는 일로 날을 보내니 정사를 처리해야 할 임금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돼 있다.
이 중에 고립무조(孤立無助)는 임이신가 하노라 〈제14수〉
↳ 고립되어 도움 받을 데가 없음

↳ (a)(a)(b)(a)의 반복을 통하여 당쟁의 근절을 간절히 바람, 운율감 형성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 당쟁을 말려 달라는 간절한 염원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하리이다 〈제16수〉
↳ '말리다'의 반복으로 임금의 공정한 태도와 역할을 강조

↳ 나라와 짝을 이룸. 붕당을 뜻함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 국가(왕)의 기강이 확립되면 국태민안도 확립됨
집만 돌아보고 나랏일 아니 하네 →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신하들의 행위 비판
하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 〈제26수〉
↳ 나라 ↳ 설의법, 당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

공명(功名)을 원(願)찮거든 부귀(富貴)인들 바랄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에 고초(苦楚)히 혼자 앉아
↳ 한칸밖에 되지 않는 작은 초가집.
↳ 끊임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근심하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
밤낮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하노라 〈제28수〉
↳ 작품을 쓰게 된 까닭. 화자는 부귀공명을 바라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 모옥(茅屋)에서 고생스럽게 지내지만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은 나라임을 표현

* 반무 : 문관이 무관이 됨.
* 간위 : 어려움과 위기.
* 구중천 :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 지공무사 :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탕탕평평 :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

작품의 특징

- 영탄법과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
-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해 신하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
- 이 작품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개탄을 주로 형상화
-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대부를 비판

작자 미상, 「거창가」

- 갈래 : 규방가사
- 성격 : 비판적, 사실적
- 주제 : 탐관오리들의 학정 폭로와 도탄에 빠진 민생 걱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이본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1840년 전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저지른 탐학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현실 비판 가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거창부폐장 초」등의 자료를 통해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입증되면서 19세기 전반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서사 : 고통스러운 거창의 상황
- 본사 : 수령 이재가에 대한 규탄과 거창의 비참한 현실
- 결사 : 임금에게 거창을 구제해 줄 것을 호소

거창지경(居昌之境)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례 → 네 곳의 지명
네 읍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정(詳定)할 제
↳ 거창이 경상도의 삼가, 합천, 안의, 지례에 둘러싸인 모습
타읍은 열한두 냥 민간에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육칠 냥 해마다 가증(加增)하네 → 타읍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음
타읍도 목상납(木上納)*을 호조혜청(戶曹惠廳) 봉상하고
본 읍도 목상납을 호조혜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 냥씩 가증하노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 자연재해. 직유법
절통타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 뼈에 사무치는 원통함. 직접적인 감정표현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건마는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偸食) 뉘 하는고 → 정부가 감면한 것을 중간에서 훔쳐먹으며 거창의 백성들에게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는 제일 심한 가포라
삼사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더욱 심하다 → 이재가의 거창수령 부임기간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한 고을을 얽어매어 침탈하며
많으면 일이백 냥 적으면 칠팔십 냥 ↗ 고을 원의 비서일을 맡는 사람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여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蕩產)한고 → 가산을 탕진함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륙군병(水陸軍兵) 던져두고
선무포 제번포며 인리포 노령포라 → 악생포외에 많은 가포를 부과함
명색(名色)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하니
김(金)담사리 박(朴)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 → 존재하지 않는 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수탈을 함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鄕作廳)에 잡혔단다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 횡포를 일삼는 아전에게 동물과 아이들까지도 경계함

작자 미상, 「거창가」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簽丁) 가련하다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
생민가포(生民價布)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 무슨 일고 → 수취제도의 부패로 황구첨정, 백골징포의 폐단이 발생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관대 가포 돈이 어인 일고
관문(關門)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커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설다
가포탈*할 제 원정(冤情)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억울한 죄로 겪은 고통스러운 생각
↗하늘이 울 정도록 비참한 거창의 현실
월락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濕) 슬픈 밤에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東軒) 하늘 함께 운다 →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여 거창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
청산(靑山) 백수(白首)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南山)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 주며
동원(東園)에 익은 술을 뉘 데리고 화답(和答)할고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 간장 녹여 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배고파 설워하며 → 배고파 우는 어린 자식들
가장(家長) 생각 설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난다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差使)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베를 탈취하여 가단 말가 → 여인들이 당한 수난
(중략)
↗자신의 소망을 임금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대상
청천(靑天)의 외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上林園)*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가 → 거창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그려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別般) 처분 내리소서 → 간악한 관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기를 소망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禁府都事)내리나니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자루 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람
어와 백성들아 연후(然後)의 태평세계(太平世界)
↳그런 뒤에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 좋은 관리가 부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 결복 :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목상납 :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나 물건을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던 일.
*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 버린 모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
* 재 :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
* 재결 :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 회감 :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 가포 :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 침책 : 조선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일.
*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 : 가짜 이름과 거짓 기록을 가리키는 말.
* 노방강시 : 길가에서 얼어 죽은 시체.
* 가포탈 :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어 포탈하던 일.
* 상림원 : 천자의 동산 이름으로,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말함.

작품의 특징

- 일반적인 규방가사와는 달리 현실의 부조리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 비교적 장편의 가사로 표기가 정연하지 못하고, 서부 경남 지역의 방언이 보임
- 규방가사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나 현실 비판 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